대한인간공학회지 회장님 인사말

존경하는 대한인간공학회 회원님께,

2012년은 대한인간공학회가 설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대한인간공학회는 학회의 이름이 상징하듯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사회의 산업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전통을 기반으로 대한인간공학회는 한층 더 깊어진 인문적 성찰과 과학적 정교함 디자인 아이디어를 무기로 미래 융합학문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과학적 산물들과 인간적 특성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인간공학이 이루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간공학에 대한 산업적 관심이 커가면서 현재 대한인간공학회 회원이 온라인등록자를 포함하여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인간공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음 체감하면서 학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학회는 회원님들이 그 간 축적해온 창의적, 학문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를 위해 부회장단과 이사님들이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인간공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학문과 산업분야에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한인간공학회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머지않은 장래에 대한인간공학회지가 국제유명저널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향후 실시될 인간공학회의 저널 국제화 사업에 회원님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5월 25-26일 양일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2012 대한인간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춘계학술대회 및 한일 공동심포지엄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2013년 가을에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인간공학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유익한 장을 만들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회원님 한분 한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인간공학회 회장

김 정 룡 올림